

# 기도주간 · 4일

## 12월 2일, 수요일



### 페루\* 아카와 족

소그룹의 남자들이 단발 엔진을 탑재한 세스나 경비행기에 탑승합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비행을 한 후, 그들은 아마존 열대 우림의 깊은 곳의 작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아카와\*라고 불리는 부족의 고립된 마을까지는 아직 7시간 이상 가야만 합니다.

만약 이 장면이 1951년 영화 “아프리카 여왕”에서 험프리 보가트와 캐서린 헵번이 모기들과 더위와 싸우는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에 네 번 IMB 선교사들과 그들의 지역 파트너들이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엔 미전도종족인 아카와 족에게 까지 데려다 줄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이 팀은 2018년부터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부족을 섬기는 IMB 선교사 조 브루스터는 “아카와는 많은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세계에 거하는 영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정령 신앙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합니다.

브루스터는 “그들은 정령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옳고 그름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석기시대에서 살짝 벗어난 것 같은 아마존 지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카와 족은 문자가 없이 말을 통해서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지만,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브루스터는 말합니다. 미전도종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페루에 약 400명의 아카와 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 조는 “애니미스트로서 그들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옳고 그름이 아닌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존의 지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석기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 브루스터, 선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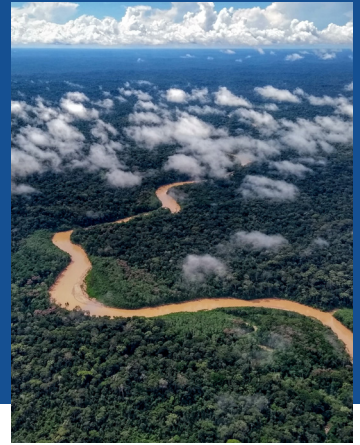
\*보안을 위하여 가명을 사용함.

접근하기 어려운 아마존 열대의  
숲 속에 복음을 전하다.

imb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imb.org/lmco



에드윈 블랑코\*는 아마존 유역에 사는 교회 개척가입니다. 원주민 선교 기관의 관리자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카와 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브루스터는 10년이 넘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팀과 함께 아카와 족과 같은 고립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랑코는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의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1950년대에 선교사들이 블랑코의 부족을 만났고, 그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블랑코의 강에 있는 교회는 든든히 서있고, 복음이 그 부족의 사람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블랑코는 복음이 자신과 그의 부족 가운데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외국의 재정으로 설립되어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집중하고 싶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합니다.

블랑코는 그의 친구 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루스터의 팀은 몇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블랑코와 그의 팀이 외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과 다른 헌금의 도움으로, 이 팀은 9개의 어장을 만들어 일하고 있으며, 최대 15개의 어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그룹은 거의 10,000 파운드의 물고기를 팔았다고 브루스터는 말합니다.

브루스터는 하나님께서 블랑코와 같은 부족의 신자들을 사용하시어 아마존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팀은 이미 아카와 부족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브루스터는 “저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제자 훈련을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든든한 현지 지도가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합니다. ...우리는 에드윈이 이끄는 기관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블랑코는 “지상대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마치 정글에서 무거운 통나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 도와주면 그 일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아카와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 에드윈과 그의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많은 아카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아카와 신자들이 모여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접근하기 어려운 아마존 열대의  
숲 속에 복음을 전하다.**